제4강 자유와 주체성(2) : 시민과 자유

시민과 자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제3권은 '시민과 헌정 질서에 관한 이론'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지배의 방식을 구분하는데, 그것은 첫째 주인-노예, 둘째 아버지-자식, 셋째 정치가-시민의 관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적 의미에서 정치는 주인-노예의 지배 관계도, 아버지-자식의 지배 관계도 아니라고 본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등한 사람들 간의 권력 관계이다. 아테네적인 국가의 이상은 대등한 시민들이 합의에 의해 권력을 인정하고 승인, 복종하는 관계였다.

이 때 시민 polites이란 무엇인가? 시민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가?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인은 타인의 강제 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테네에는 시민과 노예만이 아니라 거류민(그리스 외 다른 데서 온 사람으로서 시민권이 없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음)들도 다수 있었다. 그들은 타인의 강제 하에 있지 않았지만 시민과는 구별되었다.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이란 "관직과 법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원래 시민 polites은 폴리스 polis에서 나온 말이다. (라틴어에선 이 과정이 거꾸로 되어 cives 도시, 국가에서 civitas가 파생되어 나온다) 즉 시민은 폴리스를 더불어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닐 때는 시민이란 말을 얻을 자격이 없다.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 살면서 개인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이 된다. 폴리스는 인간의 존재의 바탕이다. 자유는 결국 인간 존재의 바탕인 폴리스를 주인이 되어 더불어 형성하고 다스릴 때 얻어지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바탕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것이 그리스의 정치적 자유의 의미였다.

물론 그리스 사회도 노예 사회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똑같은 노예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스인들은 자유로운 문화를 제한적이나마 몸소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상(以上)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노예는 자기 내부에서 소외된 이들이 아니라 전쟁 노예였다는 점에

서 특기할 만하다. (서양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부에 적용하는 척도와 외부에 가하는 척도가 다르다. 외부를 배제한 내부에선 완벽한 자유로운 삶을 누렸던 것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설사 탈옥할지라도 조롱받을 리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그 까닭은 "내가 칠십 평생을 아테네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내가 아테네 법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동의에 기초한 자유.

그리스 비극: 자유인의 예술

비극은 이렇게 긍지 높은 자유인들이 만든 예술이다. 과연 그리스 비극의 독특함이 어디에 있는지, 중국 문화혁명 세대 철학교수인 장파의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원제: 중서 미학과 문화정신)을 반면교사로 삼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장파는 오만할 정도로 단선적으로 문화엔 중국과 서양 둘만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중국과 그리스 비극이 대등한 두 가지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 비극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소재로 하는 반면, 중국의 비극은 '인내'에서 싹튼다는 것이다. 그가 중국 비극의 대표적 실례로 들고 있는 송나라 시인 육유 이야기를 보면, 육유는 대례(효)와 소례(부부사이)의 모순에 번민하다 더 큰 예(효)를 택하는데, 나중에 각각 재혼한 육유와 부인 당완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비극성'은 최고조에 이른다.

장파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중국 비극은,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곤경의 비극'이다. 이런 비극 작품들이 "자문의 방식으로 제 문화를 힐문하는 방식"이라고 장파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적 시각에선 이런 극을 비극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비극에서 주인공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유나 당완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 비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당함에 의해 비극에 빠지고 만다. 여기에는 비극적 주체의 의지를 제약하는 외적인 힘이 전제되어 있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에도 주인공은 순종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음'이 비극을 싹틔우고 있는 것이다.

장파가 언급하는 또 다른 예는 충신과 간신의 대립으로 벌어지는 비극이다. 기본적인 패턴은 간신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집권하여 충신과 간신이 대립한다, 충신은 패배하고 곤경에 빠지지만, 전형적인 권선징악적 결말에 따라 종국에선 충신이 승리하고 이를 통해 천도가 구현된다는 식이다.

장파의 주장에 따르면 "재능 있고 덕을 갖춘 선비가 어리석고 무능한 왕을 만나면 문화적 곤경에

빠진다." 즉 신하의 슬픔과 곤경은 거역할 수 없는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묶인 자의 비극이다. 그리스적 시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생겨나는 비극은 타도되어야 할 현실이지 미학적으로 승화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 비극의 위대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함'의 비극이 아니라 '행함'의 비극이라는 데 있다. 비극drama은 원래 drao라는 동사의 명사로서 (drao=act, 행위하다) 이 동사의 결과물이 드라마이다.(-ma는 동사의 결과물을 나타낸다. poieo(만들다)의 결과물은 poiema(시)이다.) 드라마는 말 자체에 이미 행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비극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의 결과물로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면면은 장파가 내세우는 중국의 전형적인 비극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장파가 소개하는 육유 이야기는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 때 연민은 인간성의 숭고와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유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육유에겐 노예에게 합당한 동정과 연민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숭고를 기대할 순 없다.

우리의 고전 주인공 춘향은 이에 비한다면 훨씬 숭고한 캐릭터이다. 그는 변사또의 부당한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그 잘못을 질책한다. 이러한 춘향의 긍지와 태도는, 비록 외적 조건에선 묶여 있지만,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는 자유인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에 비해 장파의 비극론은 봉건성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예적으로 인내하고 순응하는 데 비극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극성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노예에겐 비극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엔 어떠한 숭고도 없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욥기』 또한 대단히 독특한 비극이다. 굉장한 부자이자 선량한 사람인 욥은 악마의 시험으로 혹독한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욥은 마지막까지 신에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당당하게 따진다. 그는 자신이 처한 불행의 정당성을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비극은 이렇게 자유로운 정신 속에서만 가능하다.

비극에선 자유로운 주체가 모든 비극적 현실을 짊어지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연민과 공포는 결코 타자적인 것이 아니다. 비극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생기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성의 근원으로 꼽는 하마르티아(hamartia)는 자기의 과오이다. 원칙적으로 비극은 자기로부터 촉발된다. 아이스퀼로스의 작중 인물들이 숱하게 보이는 휘브리스(hybris, 교만) 야말로 비극성의 원천이다. 자유인의 긍지가 도를 지나칠 때 그것은 교만으로 흐른다. 비극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교만 때문에 불행에 빠지게 된다.

오이디푸스의 경우 외적으로 그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운명은 사실상 '나'의 내적인 본질에 있다. 그는 밖에 있는 권력자나 나쁜 제도에 걸려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운명, 성격, 곧 휘브리스, 하마르티아. 자기의 행위로부터 비극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비단 오이디푸스만이 아니라 『안티고네』도 마찬가지다. 안티고네 이야기는 언뜻 보면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대립하는 정치극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헤겔 식으로 표현하자면 두 개의 가치, 즉 인륜적인 법과 자연법(신의 법)이라는 나름대로 정당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크레온의 휘브리스가 자기에게 불행으로 돌아오는 비극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목숨을 끊는 끔찍한 불행에 빠진다. 한편 안티고네는 긍지 높은 인간의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외적인 힘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념 혹은 자신의 과도한 행위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경우엔 보다 수동적인 성격이 강해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 비극이 보여주는 것은 자유인의 긍지요 인간들의 숭고함이다.

비극성은 우연적인 악, 나쁜 일이 아니며 외적인 강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비극은 주체적인 유발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생한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대립,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장파가 말하는 간신이나 악한 따위가 비극의 씨앗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내재한 한계나 대립이 문제다. 그것은 운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존재 전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대립을 드러내는 주체가 자유인이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이 비극성을 '행위함'으로써 드러낸다. 장파가 말하는 중국 비극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고 거기에 맞섬으로써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 비극이다.

똑같은 비극, 연민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대해 느끼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 삶의 비극성,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